미래 사회문제 해결형 인재의 성장

기후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 생명과학, 정보통신 등 과학기술 발전과 함께 점점 더 인간이 통제하기 어려운 복잡한 사회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 예측을 더 어렵게 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도 더 복잡해짐을 의미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해지는 것은 "사람" 입니다. 문제해결 능력과 공공성을 갖춘 인재, 미래 리더십을 갖춘 인재 육성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재)숲과나눔은 환경, 안전, 보건 분야의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과학에 기반해 사고하고, 협력의 힘을 믿으며, 공공의 가치를 존중하는 인재를 키우고자 했습니다. 이번에 임팩트를 측정하는 사업은 인재양성사업 중 특정주제 연구 장학생 지원사업을 살펴보았습니다. 연구생활비 지원, 멘토링, 네트워킹 등의 지원이 연구자의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나아가 우리 사회에 어떠한 임팩트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매년 Impact Foundation Learning Community를 통해 다양한 기관의 사업과 임팩트를 학습하며 (재)숲과나눔의 강점과 가치를 돌아보게 됩니다. 다양한 기관이 만들어내는 변화가 어우러져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지속가능한 사회의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이런 뜻깊은 일을 만들고 계신 사회적가치연구원에 감사드리며, 함께한 동료 기관에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재)숲과나눔이 만들어가는 변화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재)숲과나눔도 여러분의 믿음직한 동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숲과나눔
장재연 이사장

재단법인 숲과나눔
Korea SHE Foundation

04.

(재)숲과나눔
: 특정주제 연구 장학생 지원사업

Purpose
우리가 임팩트 측정을 하는 이유

(재)숲과나눔 소개

인류 역사상 경험하지 못한 속도로 새로운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다. 반면에 이런 변화가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하지 못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시대다. 이런 시대에 가장 취약하고 위협받는 것이 환경·안전·보건 분야이다. 환경·안전·보건 분야는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우수 인력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사회의 전문성과 문제 해결이 매우 취약하다. (재)숲과나눔은 2018년 7월 환경·안전·보건 분야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합리적인 대안과 담론을 개발해 문제 해결에 기여, 숲과 같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설립되었다.

2024년 (재)숲과나눔의 임팩트 측정

올해로 설립 만 6년차를 맞이한 (재)숲과나눔은 2022년부터 재단 사업이 사회적으로 어떤 임팩트를 창출하고 있는지 측정·평가해오고 있다. <석박사 장학생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시민아이디어 지원사업 풀씨>, <풀씨아카데미> 사업의 성과를 측정함으로써 각 사업이 목적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회적 가치가 어떻게 창출되고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었다.

2022년 <석박사 장학생 지원사업> 임팩트 측정을 통해 재단의 지원을 받은 장학생들이 전문성이 개발되고 인문사회학적 소양과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의지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재단이 추구하는 '전문성' 과 '공공성' 을 겸비한 (재)숲과나눔의 인재상에 부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숲과나눔은 2024년 임팩트 측정 사업으로 인재양성 사업 중 <특정주제 연구 장학생 지원사업>을 선정하였다. <특정주제 연구 장학생 지

원사업>은 (재)숲과나눔의 인재상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여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십을 갖춘 문제해결형 연구자를 양성한다는 점에서는 <석박사 장학생 지원사업>과 목적이 같지만, 연구 주제의 선정과 진행에 대해 (재)숲과나눔과 적극 소통하고 지원함으로써 재단과 장학생의 접촉면이 훨씬 넓다는 차별점이 있다. 학업과 연구 내용에 간섭이 전혀 없는 학업 장학생과 달리 (재)숲과나눔의 환경학술포럼에서의 연구 결과 발표가 의무인 점 등 책임도 더 크다.

이번 측정을 통해 <특정주제 연구 장학생 지원사업> 임팩트의 특징이 무엇인지 평가하는 것은 (재)숲과나눔의 인재양성 프로그램의 향후 발전 방향과 전략을 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원사업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특정 요소가 연구자의 성장을 도왔는지, 혹은 현저한 변화를 일으키는 촉매제가 되었는지를 집중 분석해 보았다. 나아가 지원을 받은 연구 장학생들이 특정주제 연구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인재' 로 성장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특정주제 연구 장학생 지원사업 소개

(재)숲과나눔 인재양성 사업은 크게 '학업 인재양성' 과 '시민사회 인재양성' 으로 나뉜다. 그 중 학업지원 프로그램은 <석박사 장학 지원사업>[1]과 <특정주제 연구 장학생 지원사업>이 있다.

<특정주제 연구 장학생 지원사업>은 현재 대학원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환경·안전·보건 분야의 사회문제 연구를 지원하는 장학 사업이다. 2019년 1기를 시작으로 현재 7기까지 총 44명이 특정주제 연구 장학생 지원을 받았다. 특정주제 연구 장학생 지원사업은 1기 시작부터 지금까지 기수별 평가를 통해 지원 방법을 보완해 왔다. 이는 연구 장학생의 연구 역량을 키우고, 안정적으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고민하고 발전시켜온 과정이었다.

1
석박사 장학 지원사업은 등록금과 매월 학습지원비,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익활동가 장학 지원>, <글로벌리더십 장학 지원>을 비롯하여 올해 신설된 <생물다양성분야 석박사 장학 지원> 등 특화된 분야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표 1> 지원 방법 변화과정

분야	2019년(1기)~2020년(2기)	2020년(3기)	2021년(4기)~2024년(7기)
지원내용 및 의무 사항	**연구비와 생활지원비로 연 최대 3천만원 지원** - 연구비 사후정산 지원 - 생활지원비 최대 1천 8백만 원 지원 - 분기별 보고회 진행 - 매주 (재)숲과나눔 출근	**연구비와 생활지원비로 연 최대 3천만원 지원** - 월 최대 250만원 연구생활비 지원 - 관련 주제로 포럼 운영 (포럼 운영비 별도 지원)	**연구생활비 통합지원** - 석사과정 이상 월 80만원/ 박사과정 이상 월 120만원 - 중간, 결과보고회 진행 - 환경학술포럼 발제 참여

(1) 연구 주제

특정주제 연구 장학생 지원사업은 재단이 지정한 환경·안전·보건의 특정주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주제 영역들은 최근 2024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경제·환경·사회·기술·지정학 등 5개 부분에서 현재 글로벌 위기 요인으로 언급되는 10가지 주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재)숲과나눔은 환경·안전·보건 분야의 간과되었던 중요한 문제에 초점을 맞춰 연구할 수 있도록 '특정주제' 라는 이름이지만 사실상 매우 광범위한 연구 분야를 지원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 2> 세계경제포럼 주요 이슈와 특정연구 주제의 비교

현재 글로벌 위기 요인		밀접도[2]
1	기상이변	◕
2	AI가 생성한 역정보 및 허위정보	○
3	사회, 정치 양극화	◕
4	생활비 위기	◔
5	사이버 위협	○
6	경기 침체	◑
7	핵심 상품 및 자원의 공급망 붕괴	◑
8	국가 간 무력 충돌 확대 및 발발	◑
9	핵심 인프라에 대한 공격	◑
10	식량 공급망 붕괴	◑

<참고> 밀접도 판단 근거자료

세계이슈와 특정주제연구의 밀접도		
○	1점	관련 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적 없음
◔	2점	관련 주제가 논의된 적은 있으나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음
◑	3점	해당 주제를 연구하는 연구자가 있으며 심층 논의가 진행됨
◕	4점	해당 주제 연구자가 연구 성과를 창출함 (논문, 연구보고서 등)
●	5점	해당 주제 연구자가 연구 성과를 지속 창출하며, 확산하기 위해 노력함

2
<참고> 밀접도 판단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표기함.
원이 모두 채워질수록 밀접도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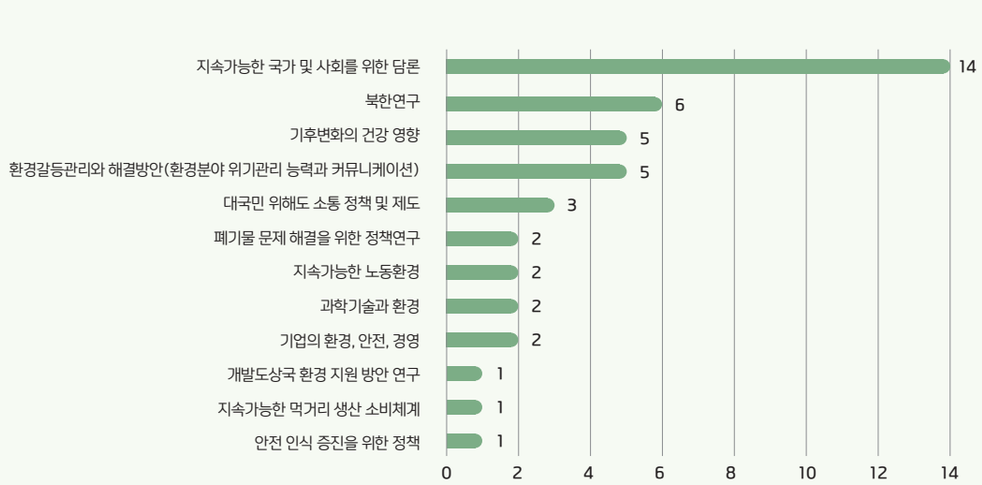
<표 3> 재단이 지정한 특정주제 리스트

- 지속가능한 국가 및 사회를 위한 담론
- 지속가능한 노동환경
- 기업의 환경, 안전, 경영
-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산 소비체계
- 과학기술과 환경
- 개발도상국 환경 지원 방안 연구
- 직업병의 사회보장
-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연구
- 대국민 위해도 소통 정책 및 제도
- 안전 인식 증진을 위한 정책
- 기후변화의 건강 영향
- 북한연구
- 환경갈등관리와 해결방안(환경분야 위기관리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 동북아(한·중·일·북)환경협력
- 환경사 연구
- 기타

재단이 제시한 특정주제에 맞춰 지금까지 선정된 특정주제 연구 분포(N=44)를 살펴보면 '지속가능한 국가 및 사회를 위한 담론' 이 가장 많았다(31.8%). 1인 가구(박*선), 커먼즈[3] (안*롬), 기후복지(강*모), 에너지 수요반응(신*영, 정*성) 등의 새로운 주제의 연구가 '지속가능한 국가 및 사회를 위한 담론' 연구 분야로 신청되고 선정됐다. 특정주제라고 해서 연구 분야의 폭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요하지만 부각되지 않았던 새로운 주제의 연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많이 진행된 연구는 북한연구(김*린, 문*찬, 이*수 등)이다. 이들을 중심으로 (재)숲과나눔 한반도청년환경포럼을 결성하고 공동 연구 사업을 진행하는 등의 확장성을 보임으로써, 향후 유사 주제 연구 장학생 축적에 따른 네트워크 형성의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3
커먼즈(Commons)는 한국에서 '공동자원' , '공유지' 등으로 번역되거나 영어의 음역 그대로 '커먼즈'라고 불리기도 하는 개념으로 최근 사회운동과 학술장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커먼즈 연구' 는 자본주의적인 소유 방식과 생활 양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사회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으로, 공동자원의 공동체적인 관리 경험에 대한 설명, 공동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커먼즈를 형성하려는 구성적 작업에 대한 분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림 1> 특정주제 연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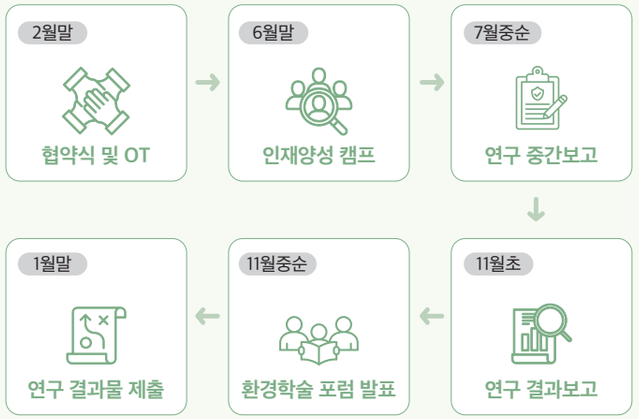


(2) 연구 장학생 지원

연구 장학생 선정은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 제안서의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대학원 석박사 연구생의 경우에는 연구 여건상 지도교수의 연구실에서 수행하는 국가 과제나 프로젝트에 따라 연구 주제를 정하는 경향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학위 논문이나 연구 주제를 본인의 관심사보다는 지도교수의 연구 주제나 선호도에 맞추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정주제 연구 장학생 지원사업은 연구 장학생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기 때문에 연구자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주제와 연구방법론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면접심사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들은 이후 중간보고와 결과보고를 통해 연구 장학생들에게 지속적인 멘토링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연구 장학생들은 멘토링 이외에도 캠프, 포럼, 특강 등을 통해 다른 연구 장학생들과 교류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연구 결과는 매년 (재)숲과나눔 환경학술포럼을 통해서 발표해야 하며, 완성된 최종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해당 연도의 지원사업이 완료된다. 2023년까지 총 33명이 지원을 받았고, 2024년 현재 11명이 지원을 받아 연구를 진행 중이다.

<그림 2> 특정주제 연구 장학생 지원 과정



Our Impact
임팩트 정의하기

특정주제 연구 장학생 지원사업 임팩트 정의

이 사업의 임팩트를 정의하기 전에 우선 (재)숲과나눔의 인재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재)숲과나눔의 인재상은 (재)숲과나눔의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가치로 특정주제 연구 장학생 또한 인재상에 맞게 양성되고 있는지가 이 사업의 첫 번째 평가 지점이기 때문이다. (재)숲과나눔이 바라는 인재상은 과학에 기반한 사고를 하는 인재, 협력의 힘을 믿는 인재, 공공의 가치를 존중하는 인재이다.

<그림 3> (재)숲과나눔 인재상



특정주제 연구 장학생 지원사업은 이러한 (재)숲과나눔 인재상에 기반하여 과학성과 공공성을 가진 협력의 힘을 믿는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이들이 서로를 지지하고 협력할 수 있는 건강한 지식생태계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에 맞추어 이번 임팩트 측정을 통해 특정주제 연구 장학생 지원사업의 임팩트를 아래 <표 4>와 같이 정의해 보았다.

<표 4> 특정주제 연구 장학생 지원사업 임팩트 정의

1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공공성을 가진 인재양성
2	건강한 지식생태계 구축
3	더 나은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

사업 단계별 지원에 따른 연구 장학생 성장 로드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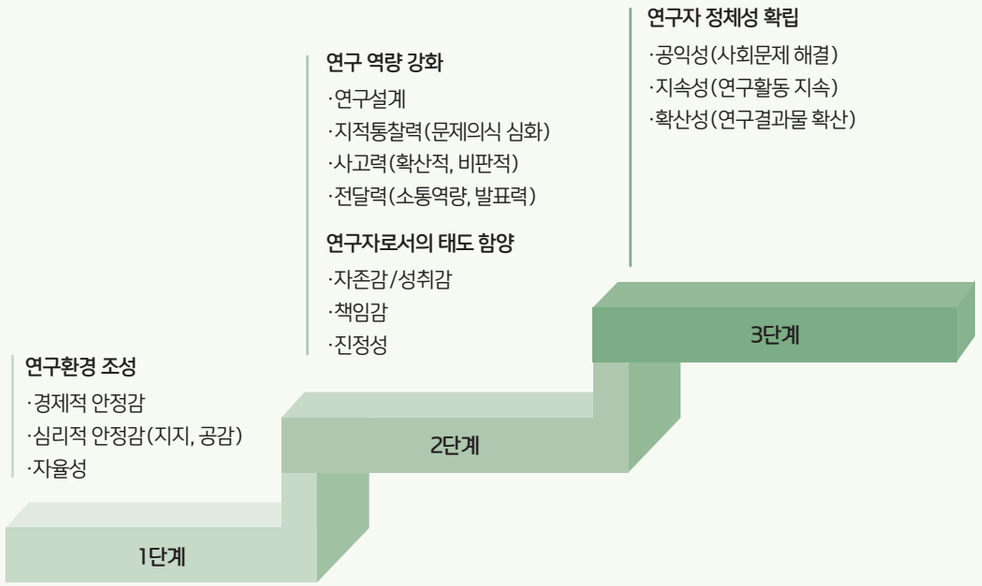
이 사업이 우리가 정의내린 임팩트를 창출하고 있는지 측정해 보기 위하여 지원 내용을 연구 진행 과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총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단계별 지원 내용과 이에 따른 목표는 <표 5>와 같다.

<표 5> 단계별 지원 내용 및 목표

구분	지원 내용	목표
1단계 지원	- 자율적인 연구 주제 선정 - 연구생활비 지원 - 네트워크 교류의 장 마련(포럼, 캠프, 특강 등)	-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공감과 지지)
2단계 성장	- 중간 및 결과보고를 통한 분야별 전문 멘토링	- 연구 역량 강화 및 연구자로서의 태도 함양
3단계 확립	- 연구 장학생 간 교류 지속 지원 - 다양한 연구활동 기반 마련	- 건강한 지식생태계 구축 -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

위의 표에서 정리한 단계별 지원 내용과 목표 등의 기존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 참여 연구 장학생의 개별 심층 인터뷰(IDI)분석, 재단 내부 담당자와 자문위원 등 내·외부 이해관계자 논의과정을 거쳐 참여 연구 장학생들의 성장 로드맵을 그려보았다. 그리고 아래 <그림 4> 단계별 연구 장학생 성장 로드맵을 이 사업 핵심지표로 도출하고 인재양성 모델로 구축하였다.

<그림 4> 단계별 연구 장학생 성장 로드맵(인재양성 모델)



Impact Measurement 임팩트 측정하기

설문측정 및 개별 심층 인터뷰(IDI)

이번 임팩트 측정은 단계별 지원에 따른 연구 장학생의 성장을 보기 위한 지표를 제작하여 참여연구 장학생 전원(N=41명/중복지원 인원 제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 응답에 따른 세부적인 의미를 확인하고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 장학생 중 11명과 자문위원 3명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 인터뷰(IDI)를 병행하였다.

<표 6> 임팩트 측정 방법 및 지표

구분	측정내용
개별 심층 인터뷰(IDI)	- 기간: 7/26(금)~8/9(금) - 대상: 총 14명(연구 장학생 11명, 자문위원 3명)
설문조사	- 기간: 8/1(목)~8/8(목)까지 8일간 - 대상: 총 44명 중 중복지원 제외, 총 41명 - 설문응답: 37명 (응답률 90.2%)

대분류	중분류	측정문항
기본 인적사항	성별/기수/연령/학력/ 연구분야/연구 키워드/지원비/지원기간	
연구 장학생의 개인적 성장	전문성 향상	- 과학적 사고, 전공지식, 연구방법, 정보 탐색 및 활용 기여도
	공공성 성숙	- 연구전략, 정책, 사회문제, 글로벌문제 기여도
	정체성 확립	- 연구자로서의 정체성 확립 정도/기여도
연구의 지속과 사회적 확산	연구물 활용	- 학위 논문 게재 여부 - 학술 논문 게재 여부 - 언론 또는 인터뷰 진행 여부 - 고용의 기회 여부 - 기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문제 해결에 기여	- 기여 의지, 방법(대중참여, 교육, 정책, 문화, 연구지속)
세부 프로그램 임팩트	각 과정별 프로그램 만족도	
	연구 주제 선정	- 선정 방법 - 주제 선정 자율성 기여도 - 차별점
	멘토링	- 기여도/차별점
	네트워킹	- 기여도/차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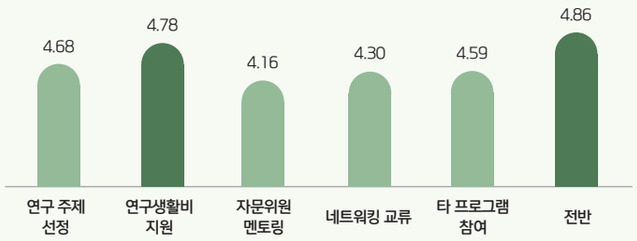
*설문조사 및 개별 심층 인터뷰(IDI) 모두 공통적으로 측정 지표를 활용하였으며, 개별 심층 인터뷰(IDI)는 지원 과정에 따른 변화를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특정주제 연구 장학생 지원사업 만족도

특정주제 연구 장학생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86점으로 연구 장학생 대다수(97.2%)가 매우 만족했음을 알 수 있었다. 각 과정별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도 모든 과정의 만족도가 높게 평가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연구생활비 지원(4.78점)' 이 가장 높았다.

<그림 5> 특정주제 연구 장학생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점(5점 척도) N = 37



개별 심층 인터뷰(IDI)를 통해서도 경제적 지원이 기본적인 연구 환경의 안정과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줌으로써 큰 도움을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활비까지 지원해주는 펀딩이 유일했다. 연구지원비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현장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_ 연구자 강*모(University of Kansas)

연구 장학생의 개인적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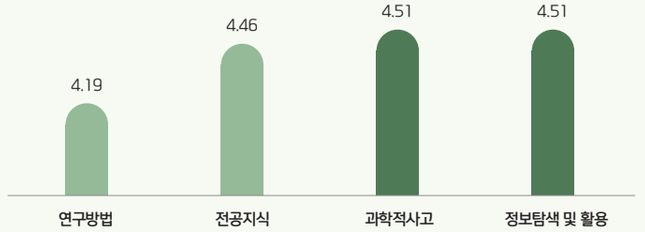
프로그램을 통한 연구 장학생 개인이 어떻게 성장해 나갔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장학생 개인의 성장은 전문성 향상, 공공성 성숙, 정체성 확립 부분으로 나눠서 진행하였다.

(1) 전문성 향상

설문조사를 통해 '이 사업이 전문성 향상을 위해 과학적 사고, 전공 지식 향상, 연구 방법론 이해 및 학습, 정보 탐색 및 활용에 도움이 되었는가' 질문에 '정보탐색 및 활용(4.51점)' 및 '과학적 사고(4.51점)' 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동일하게 높았으며 '전공 지식 향상(4.46점)', '연구 방법론 이해 및 학습(4.19점)' 이 뒤를 이었다.

<그림 6> 특정주제 연구 장학생 전문성 향상 기여도 조사 결과

단위: 점(5점 척도) N = 37



관련 응답으로 개별 심층 인터뷰(IDI)를 통해 지원사업 과정 중 멘토링을 통해 연구 정보를 얻고 사회 문제 현상을 보다 과학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전문성 향상에 도움을 준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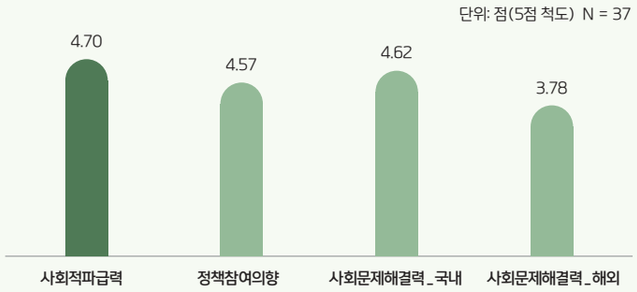
멘토링을 통해 연구의 배경을 이해하게 해주었고 연구 현상에 관련된 사회학 이론과 연구 방법을 알려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 _ 연구자 증*(인하대 중국학연구소)

멘토링을 통해 연구 완성보다 보는 연구를 바라보는 시각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서 만족스러웠다. 연구 정보를 얻고 확장해 나갈 수 있어 좋았다. _ 연구자 이*수(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2) 공공성 성숙

설문조사를 통해 '이 사업이 공공성 성숙을 위해 연구 전략(연구 이해 및 사회적 파급 영향력), 연구에 기반한 정책결정, 사회문제 해결방안 모색, 국제사회문제 해결방안 모색에 도움이 되었는가' 질문에 '사회적 파급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도움(4.70점)' 이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사회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도움(4.62점)' 이 되었다는 응답과 '연구에 기반한 정책결정과 참여를 모색하는데 도움(4.57점)' 이 되었다는 응답이 이어졌다.

<그림 7> 특정주제 연구 장학생 공공성 성숙 기여도 조사 결과



관련 응답으로 개별 심층 인터뷰(IDI)를 통해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회문제 해결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연구를 하고자 변화하였으며,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연구 장학생의 시각도 변화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용적인 함의에 대해 이전에는 잘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원사업 이후 사회에 정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려고 하고, 그런 연구나 프로젝트를 했을 때 제일 좋다. _ 연구자 안*롬(서울대 지속발전가능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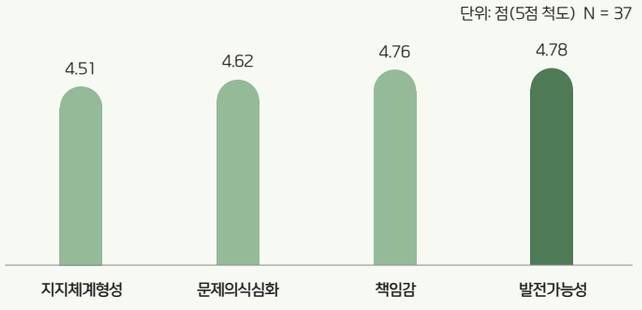
실질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고민하는 연구를 할 수 있어 좋았다. 복잡한 사회문제를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사회문제에는 항상 관심이 많지만 실제 문제 해결에 적용되어 해결될 수 있도록 고민이 증대했다. _ 연구자 박*선(사단법인 오픈도어)

현장과 밀접하게 소통하는 연구자가 되고 싶다. 현장과 밀접하게 소통하고 연을 이어 나가려고 노력해야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_ 연구자 강*모(University of Kansas)

(3) 정체성 확립

설문조사를 통해 '이 사업이 연구자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어떤 점이 도움이 되었는가' 질문에 전반적으로 모든 항목의 응답이 높았으며 그 중 '향후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시간이었다' 는 응답이 4.78점으로 가장 높았다. '연구 주제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연구자로 성장하도록 도왔다' 는 응답이 4.76점이었으며, '사회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연구를 통해 알리고 해결하는 연구자가 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는 응답이 4.62점,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던 주제를 연구하는 데 지지를 받아 정체성이 확고해졌다' 는 응답이 4.51점이었다.

<그림 8> 특정주제 연구 장학생 정체성 확립 기여도 조사 결과



관련 응답으로 개별 심층 인터뷰(IDI)를 통해 전반적으로 사업의 전반적인 과정이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에 도움을 준 것을 알 수 있었다. 본인이 선정한 연구를 통해 문제의식을 심화하고, 멘토링을 통한 지지와 연구 발전 과정을 거쳐 향후 이 연구를 지속,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연구자가 되고 싶다는 책임감 있는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과정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

'나' 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깨닫는 시기였던 것 같다. 활동가로 오래 일할 때는 몰랐는데, 연구자로 오랜 시간 무언가 집중해서 연구하고 고민하는 과정을 내가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잘 맞는구나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_ 연구자 배*람(녹색전환연구소)

사업을 통해 멘토링을 받고 발표를 하고 이런 연구과정이 저 자신을 책임감 있는 연구자로 성장하게 하였다. 연구자로의 전환점에서 모든 것을 (재)숲과나눔에서 지탱해주고 있는 것 같다. _ 연구자 이*영(제주대 사회학과)

내가 하고 싶은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고, 나는 앞으로도 이 길을 계속 가야겠다는 생각을 확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 1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나도 연구를 혼자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연구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다. _ 손*주((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Hill)

연구의 지속과 사회적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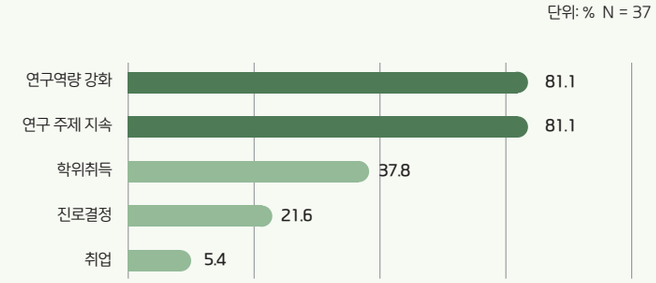
이 사업을 통해 성장한 연구 장학생의 결과물이 얼만큼 활용되고 있는지, 앞으로 사회 문제 해결에 어떤 방법으로 기여하고자 하는지 연구의 지속과 확산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1) 연구의 지속

설문조사를 통해 이 사업이 연구 장학생에게 도움이 된 부분이 무엇인지 물었다. '본인이 계속 이어 나갈 연구 주제가 되었다(81.1%)', '연구역량이 강화되었다(81.1%)' 는 응답이 높았으며 학위를 취득하고,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도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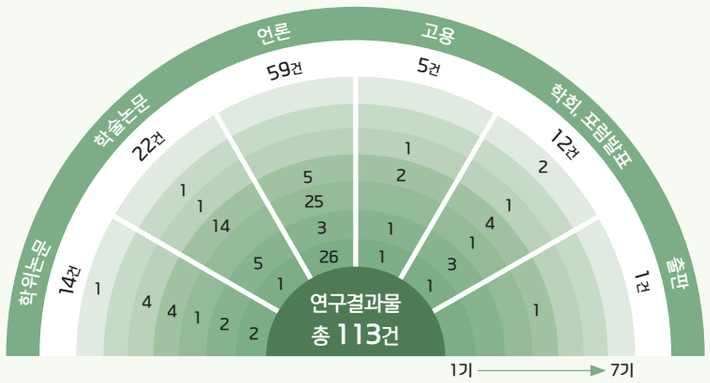
<그림 9> 특정주제 연구 장학생 지원사업 기여도 조사 결과

Q. 특정주제연구지원이 전반적으로 도움이 된 부분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정량적 측정으로 연구 결과물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활용하였는지에 대한 결과로 작성한 학위 논문은 14건, 학술논문 게재는 22건, 언론보도 및 인터뷰 진행은 59건이었다. 기타 출판을 하거나 포럼 및 학회에서 발표를 진행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그림 10> 기수별 연구결과물 활용 분포도



연구 장학생 기수별 연구 결과물 활용 분포도를 살펴보면 1기에서 4기까지 연구결과물을 학위논문 활용, 학술논문 게재, 언론보도, 취업, 발표, 출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해 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기에서 7기의 경우 연구를 지속해 나가는 중이며 학위논문으로 활용할 계획이거나 학술논문 게재 심사 중, 계획 중인 경우가 더 많았다(5기 4건, 6기 4건, 7기 11건). 또한 개별 심층 인터뷰(IDI)를 통해 특정주제로 진행한 연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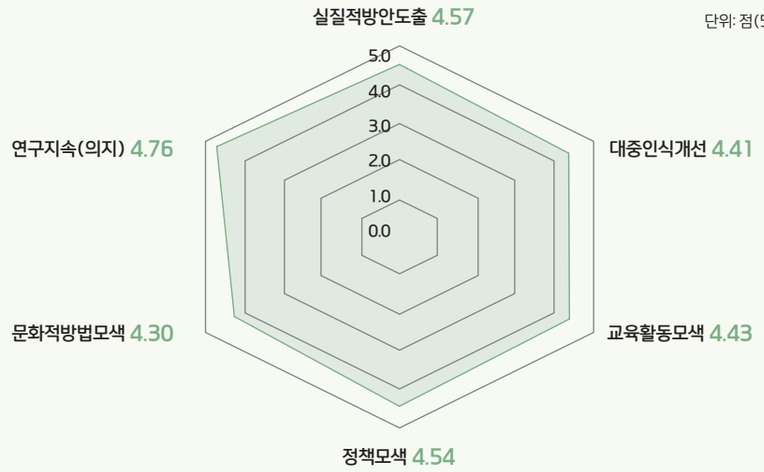
(재)숲과나눔 학술포럼, 관련 분야 학회 등을 통해 꾸준히 연구 결과물을 투고하고 발표하려고 하고 있다.
_ 연구자 증*(인하대 중국학연구소)

최종보고때 해주셨던 자문위원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때 주신 주제가 계속 생각에 남아서 이것으로 연구를 이어 나가보려고 한다. (재)숲과나눔 한반도환경포럼을 통해서도 계속 확장해나가보려고 한다.
_ 연구자 이*수(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2) 연구의 사회적 확산

연구 장학생들은 관련 주제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는 것 외에도 연구의 결과물을 매개로 사회와 소통하고, 관련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확장하고 있었다.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대중인식 개선, 교육활동, 정책모색, 문화적 방법 모색, 연구를 통한 기여 등 다양하게 관심을 가지고 응답하였으며 모든 항목이 5점 만점에 4.30점 이상의 고르고 높은 응답률을 볼 수 있었다.

<그림 11> 사회 문제 해결 기여 방법 조사결과



또한 개별 심층 인터뷰(IDI)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자가 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특정주제연구로 진행한 현장연구의 내용을 글로 쓰고 책으로 출판하고 싶다.
_ 연구자 강*모(University of Kansas)

(재)숲과나눔의 지원으로 연속포럼을 열 수 있었고, 이를 통한 인터뷰 기사 게재(50건이상), 정책제안, 지자체 컨설팅 등 실효성 있는 연구로 확장해나가고 있다. 1인 가구 연구의 관계망을 형성하고 커뮤니티 모델을 만들고 확장시키고 싶다. _ 연구자 박*선(사단법인 오픈도어)

연구지원사업 이후, 방콕 서머셋 대학에서 강사일을 하게 되었는데 학생들과 실제 현장에 많이 다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연구 외적으로 동남아와 한국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 _ 연구자 유*지(서강대 동아시아연구소)

사업의 세부 프로그램의 특징적인 임팩트

특정주제 연구 장학생 지원사업 임팩트 측정을 위한 사전 면담에서 연구 장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타 장학사업이나 연구비 지원사업과의 차별점으로 지적한 것은 연구 주제의 자유로움, 독특한 형식의 멘토링, 장학생 간의 활발한 교류와 소통이었다. 이런 차별점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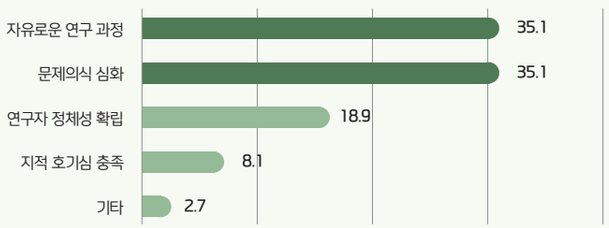
(1) 연구 주제 선정 '자율성'

특정주제 연구 장학생 지원을 위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연구 주제 선정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았다. '연구 주제는 어떻게 선정하였냐' 는 질문에 '본인의 관심사에 따라 결정했다(67.6%)' 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학위논문의 일부 주제를 선정했다(27%)' 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연구 주제 선정의 자율성이 어떤 도움이 되었냐는 질문에 응답의 35.1%가 '자유로운 연구 과정' 과 '문제의식 심화' 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동일하게 높았으며 '연구자로서의 정체성 확립(18.9%)' 에도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그림 12> 자율적인 연구 주제 선정 기여도 조사결과

단위: % N = 37



관련 응답으로 개별 심층 인터뷰(IDI)를 통해서도 본인의 관심사에 따른 자율적인 연구 주제 선정이 특정주제 연구 장학생에 지원한 가장 중요한 동기이며, 많은 연구자들이 이에 대한 지지와 공감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연구 주제가 아프리카다 보니 그 분야에 특정되어 있는 지원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중요한 연구라 생각되는 지점인데 특정주제로 가능한 연구 주제 분야가 개발도상국과 관련이 있어 지원할 수 있었다.
_ 연구자 손*주(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Hill)

학교보다 자율적으로 연구 주제를 선정할 수 있어 지원하게 되었다. 타 연구재단을 통한 지원은 프로젝트 조건이 있어 압박감이 있는데 이 사업은 압박이 없었고, 무엇이든 해볼 수 있도록 자율성을 주고 믿고 지지해준 것이 컸다. _ 연구자 박*선(사단법인 오픈도어)

자율적인 연구 주제 선정을 통해 저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식을 모두 나타낼 수 있어 좋았다. 또한 면접 심사 때 제 주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자문위원분들께서 함께 공감해주시고 발전시켜 나가 주셔서 만족감이 컸다.
_ 연구자 이*영(제주도 사회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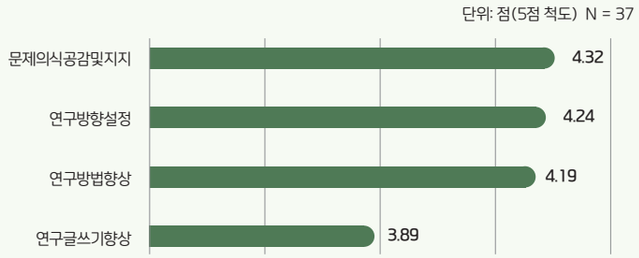
우리나라 많은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들의 경우 연구 여건상 본인의 관심사만으로 연구 주제 결정이 어려운 편이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대다수가 본인이 연구 주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했고, 선정된 이후에는 자유롭게 연구하고 문제의식을 심화시켰으며 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됐다는 이번 조사 결과는 (재)숲과나눔의 특정주제 연구 지원사업의 목적과 전략이 유효했음을 보여준다.

(2) 멘토링을 통한 연구 역량 강화 및 문제의식 지지

특정주제 연구 장학생 지원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분야별로 구성된 패널이 선정부터 최종 결과 보고까지 연구 장학생 개인별로 멘토링을 진행하는 것이다. 멘토링은 분야별 최고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되며, 약 1시간동안 진행된다. 이렇게 진행되는 멘토링을 통해 연구 장학생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살펴보았다.

'멘토링 프로그램이 연구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 질문에 '문제의식의 공감과 지지(4.32점), 연구방향 설정(4.24점), 연구 방법 향상(4.19점)'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13> 멘토링 프로그램 기여도 조사결과



개별 심층 인터뷰(IDI)에서도 멘토링을 통해 연구 방향 설정, 연구 아이디어, 연구 방법 등 연구 역량 강화의 도움을 받았으며, 독려와 지지를 받은 것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많았다. 또한 건강한 비판과 토론 방식의 멘토링에 대한 호감이 표현되었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 연구자 본인과 연구가 성장하는 것을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를 완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식이 만족스러웠다. 연구자 경력이 오래되었어도 이 분야의 신진 연구자였는데 다양한 아이디어를 주시고 막막한 상황을 헤쳐 나가는 법을 알려주셨다.
_ 연구자 이*수(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멘토링을 통해 연구 서술 방법, 방향 설정, 찾은 사례연구들을 정리하는 법 등을 지도 받을 수 있어 굉장히 좋았다.
_ 연구자 배*람(녹색전환연구소)

전문가들과 세 번의 과정을 거쳤다. 보통은 면접과 최종보고만 해서 평가만 받고 멘토링을 받는 느낌이 적은데, 여기서는 건설적 토론이 오간 기억이 있다. 비판을 받으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 그런 부분이 강조가 된 게 좋았다. _ 연구자 손*주(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처음 나의 연구는 부족한 점이 많은 주제였다. 멘토링을 통해 독려해주시고 연구에 대해 조언을 많이 받다 보니 스스로 분발하게 되어 연구가 점점 좋아지고 다듬어진 것 같다. _ 연구자 안*롬(서울대 지속가능발전연구소)

멘토링에 참여한 자문위원 역시 개별 심층 인터뷰(IDI)를 통해 특정주제 연구 장학생 지원사업의 강점을 멘토링이라고 답했다. 멘토링이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충실히 했고, 멘토링의 과정이 자문위원과 연구 장학생의 문제의식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며 나아가 세대 간의 교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사업은 연구에 대해 멘토링을 해주고 함께 성장한다는 것이 장점이자 강점이다. 보고서로만 보면 알 수 없는 연구자의 강점과 약점을 알 수 있는 시간이고 이 시간의 토론을 통해 나도 배우고, 연구자도 문제의식을 분명히 하고, 해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았다. _ 1~7기 자문위원 구도완(환경사회연구소 소장)

특정주제에서 만났던 연구자들은 연구 주제에 대한 목적의식이 뚜렷했다. 내용에 있어서도 그것을 스스로 풀어나가는 방식에 있어서도 자기주도적 측면이 더 잘 보였다. 우리가 코멘트할 때도, 정책적 함의나 시사점하고 연결해서 코멘트 주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연구자들이 연구의 실질적 정책적 함의를 잘 정리하고, 거기에 맞춰서 연구를 정리해 나가고 있는 과정을 볼 수 있었다. _ 4~7기 자문위원 박진희(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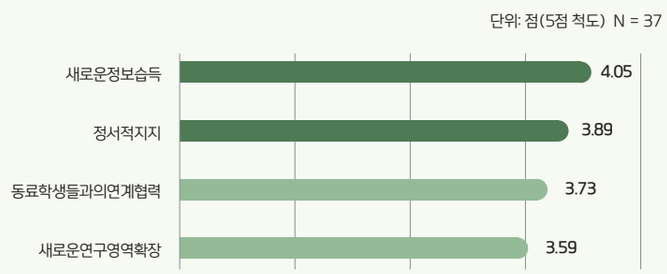
(3)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정서적 지지체계 확장

(재)숲과나눔 모든 사업은 씨줄과 날줄처럼 엮여 있다. 각 사업 내에서 별도의 교류의 장이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사업을 지원받고 난 후에도 다른 사업을 통해 다시 연구와 활동을 이어 나가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전체 사업 구조가 설계되어 있다. 이런 소통과 교류를 통해 네트워크 구성원 서로가 상호 지지자가 되고 문제의식을 공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정주제 연구 장학생 지원사업 또한 지원과정 중 인재양성 여름캠프, (재)숲과나눔 환경학술포럼, 관련 분야 포럼 참여 등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장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연구 장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보았다.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질문에 '새로운 정보 습득에 도움(4.05점)' 이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정서적 지지(3.89)' 를 받았다는 응답이 이어졌다. 앞서 멘토링 만족도 설문에 비해 네트워킹에 대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재)숲과나눔의 다른 프로그램에서 네트워킹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과 비교되는 결과다. 이는 장학생 네트워크 프로그램의 핵심은 2박3일 진행되는 숙박프로그램 캠프인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2022년 3년 동안 실시하지 못한 것이 큰 이유로 보인다.

<그림 14> 네트워킹 프로그램 기여도 조사결과



개별 심층 인터뷰(IDI)에서는 연구 장학생들이 (재)숲과나눔의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인 네트워킹과 교류를 유지·발전시키고, 이런 과정에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문제의식에 대한 공감과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자의 의지와 관심도 중요하지만 재단의 경제적 지원 뿐만 아니라 인프라와 인적 네트워크를 지원해주어 성장할 수 있었다. 연구가 끝나도 풀씨연구회, 한반도청년환경포럼, 환경학술포럼 등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신 것이 큰 변화다. _ 연구자 문*찬(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재)숲과나눔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이 연구사업 외에 다른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혼자 연구를 진행할 때보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 (재)숲과나눔 환경학술포럼 조직위원회 활동 과정을 통해 용기를 얻고 자신감이 생겼다. _ 연구자 유*지(서강대 동아시아연구소)

인재양성 여름캠프에서 만나게 된 연구자들과 교류하면서 서로 주제가 달라도 관점이 비슷하다보니 내 연구에서 더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까지는 사회 문제를 가시화하는 것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식도 고민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_ 연구자 김*민(서울대 사회학과)

임팩트 결과

(1) 특정주제 연구 장학생 지원사업의 차별점

설문조사와 개별 심층 인터뷰(IDI)를 통해 이 사업의 어느 지점이 연구 장학생의 성장을 도왔고 변화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측정을 진행했다. 측정 결과, 단계별 지원에 따른 성장 지점과 사업의 차별점을 아래 <표 7>과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

<표 7> 단계별 지원에 따른 성장 지점 및 사업의 차별점

구분	지원 내용	성장 지점	차별점
1단계 지원	- 자율적인 연구 주제 선정 - 연구생활비 지원 - 네트워크 교류의 장 마련 (포럼, 캠프, 특강 등)	-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 (공감과 지지)	- 자율성에 따른 연구 주제 선정과 과정 - 문제의식 지지와 공감
2단계 성장	- 중간 및 결과보고를 통한 분야별 전문 멘토링	- 연구 역량 강화 및 연구자로서의 태도 함양	- 문제의식 심화 - 중요하지만 간과되어 있던 사회문제 발굴
3단계 확립	- 연구 장학생 간 교류 지속 지원 - 다양한 연구활동 기반 마련	- 건강한 지식생태계 구축 -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	- 사회문제 책임감 증진 - 사회문제 해결형 인재로 성장

공통된 점으로 지지의 경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율적인 연구 주제 선정 과정과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문제의식을 지지 받을 수 있었고, 특히나 지속적인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지지 받는 것 이상으로 문제의식을 심화시켜 나갈 수 있었다.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묻는 설문응답을 통해서도 단계별 지원에 따른 성장과 지지의 경험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연구재단의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등 국가 지원사업 대비, 비교적 신청 및 심사 절차가 합당하고 간편하다. 선정 기준이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와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지원기관이 원하는 방향을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하거나 성과물을 제시해야 하는 부담이 없어서 좋았다. 연구 주제 선정 과정은 연구자가 연구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연구자가 원하는 성과를 얻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수 있다는 점에 강점이 있다. 환경문제는 짧은 기간 내에 해결 할 수 없다는 특성을 가지는데, 연구자의 호흡에 맞추어 지원을 해 준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다."

"(재)숲과나눔 지원을 받기 전 경험해본 타 연구지원사업은 학문을 하는 학생으로서 받는 지원이어서 조금 더 '나' 의 스펙으로서의 지원이었다면, 특정주연구지원사업의 경우, '세상' 에 기여할 수 있는 주제로서 연구를 지원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_ 연구 주제 선정 과정에 있어 타지원사업과의 차별점 설문 응답 중 발췌

일반적으로 연구 지원사업들은 모집, 선발을 거쳐 연구비를 지원하고 결과물을 제출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연구자보다는 연구 자체에 중심을 두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사업은 측정 결과를 통해 연구 결과물 보다는 연구 장학생의 문제의식을 지지함으로써 성장을 돕고 정체성을 확립시킬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고 볼 수 있었다.

(2) 특정주제 연구 장학생의 연구 여정

개별 심층 인터뷰(IDI)를 통해 (재)숲과나눔이 지원한 대다수 연구 장학생이 <인재양성 모델> 연구자 성장 로드맵에 맞춰 성장하고 있었으나 기존

연구 경험, 역량 등에 따라 다양한 성장 유형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활동가가 전문 멘토링을 통해 연구 역량이 강화된 경우, 연구장학생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 문제의식이 심화·확장된 경우, 환경 분야 문제인식 활성화를 통해 심화·확장된 경우, 학위과정 이외 사회 문제 연구 과정을 통해 공공성이 심화·확장된 경우 등 성장요인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표 8> 연구 장학생 성장 유형분류(심층인터뷰 대상자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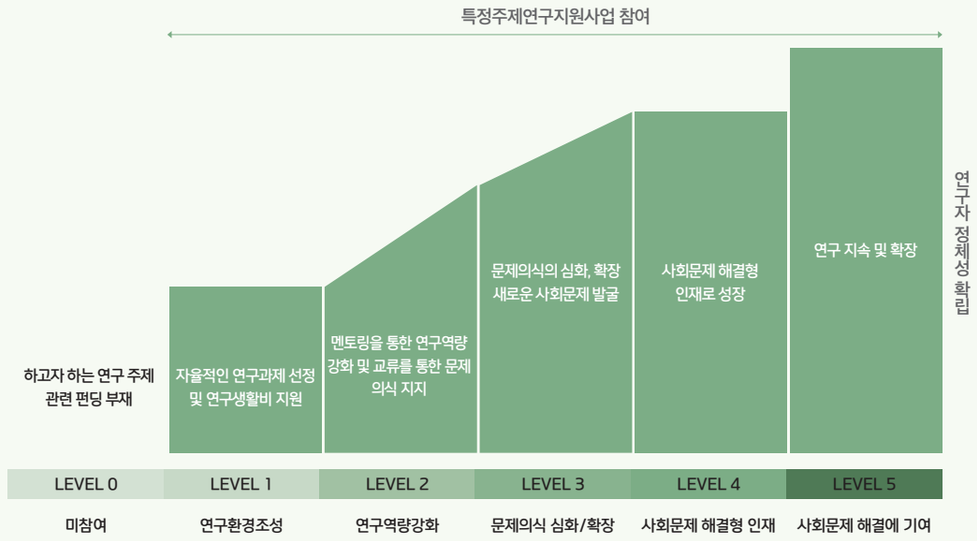
구분	성장요인	연구 장학생(소속)	연구 주제
성장 유형 A	전문 멘토링을 통해 연구 역량이 강화된 경우	배*람 (녹색전환연구소)	환경오염의 재난 발생과정 연구: 익산 장정마을을 집단 건강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이*영 (제주대 사회학과)	지방개발공사 증가의 원인과 쟁점: 제주개발공사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례 분석
성장 유형 B	연구자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 문제의식이 심화/확장된 경우	문*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남북산림협력과 SDGs: 발전방향과 과제
		이*수(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한반도 환경-경제-과학기술 협력의 넥서스: 남북한 기후기술협력 방안 모색
		안*롬(서울대 지속가능발전연구소)	커먼즈론을 활용한 도시의 지속가능성 전환과 환경교육
		유*지(서강대 동아시아연구소)	아세안의 탄소고착화 메커니즘 분석과 담론적 전환점 모색
성장 유형 C	환경 분야 문제인식활성화를 통해 연구 주제가 심화/확장된 경우	강*모 (University of Kansas)	기후불평등과 사회복지: 동자동 쪽방촌 사례를 중심으로
		박*선 (사단법인 오픈도어)	- 국내 1인 가구의 생애주기별 건강과 환경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 국내 인구변화 주요 이슈와 대응에 관한 연구
성장 유형 D	사회 문제 연구 과정을 통해 연구자의 공공성 심화/확장된 경우	증* (인하대 중국학연구소)	중국 환경 기휘의 제도화 과정: 판위 쓰레기 소각장 건설 반대 시위를 중심으로
		손*주(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공간구조 변화와 보건 분야 정주환경 지원 방안 연구

또한, 개별 심층 인터뷰(IDI)를 통해 연구 장학생 개개인이 성장의 속도와 유형은 다르지만 공통된 성장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계별 지원에 따른 연구 장학생의 성장 지점이 모두 담긴 한 연구 장학생의 사례를 살펴보며 연구 여정을 보고자 한다.

"아프리카를 좋아하는 연구자입니다. 아프리카의 정주환경에 대해 연구를 진행해보고 싶었지만 국내에서는 제대로 된 연구 지도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재)숲과나눔의 연구자 지원공고를 보고 지원하였고 재단이 지정한 특정주제 중 개발도상국 환경 지원 방안 연구 분야로 선발되어 1년 동안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석사 학위논문을 잠시 미루고 내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있는 순간이었고 무척 행복했습니다. 중간, 결과보고를 통해 나의 연구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연구의 빈틈을 메꾸고 발전시켜 주시는 자문위원분들께 감사했습니다. 환경학술포럼이라는 장을 통해 나의 연구를 발표할 수 있었고 나와 같은 생각과 고민을 가진 연구자와 교류하며 든든했고 나의 연구에 또다른 자극이 되었습니다. 연구 지원은 끝났지만 (재)숲과나눔 국제풀씨 사업을 통해 아프리카에서 환경을 주제로 활동하는 팀들을 만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연구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정주제연구결과는 보완하여 단독저자로 SCI에 게재할 수 있었습니다. 오롯이 연구의 시작부터 끝까지 혼자 힘으로 할 수 있었던 1년이 있었기에 앞으로 어떤 연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진짜 연구자가 되었고 나의 연구가 세상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_ 연구자 손*주(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Hill)

연구 장학생 41명의 성장 유형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자율적인 연구 주제 선정과 경제적 지원, 네트워킹 교류를 통한 정서적 지지를 통해 안정적인 연구환경이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면접심사부터 중간, 결과보고를 통한 지속적인 멘토링으로 역량(전문성 강화, 공공성 성숙)이 강화되었으며 문제의식이 심화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과정을 통해 연구자 정체성이 확립되었고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함으로써 중요하지만 간과되었던 새로운 문제를 발굴하는 계기가 되었다. 더 나아가 사회 문제 해결형 연구자로 성장하였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5> 특정주제 연구 장학생 성장과 정체성 확립과정



4년간 자문위원으로 참여해주고 계신 오충현 교수(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는 '기존에서 탈피해 본인이 하고 싶은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이 되는 것. 이게 (재)숲과나눔 연구 장학생들의 특징이다. 기성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 석박사 과정 때 내가 하고 싶은 연구에 대해 깊이 들어가야 나중에 전문 연구자가 되었을 때, 나의 연구를 하면서도 추가적인 연구를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연구 장학생들이 전문 연구자로 진출했을 때 잠재력이 상당할 거라고 기대가 된다' 고 답했다.

특정주제 연구 장학생 지원사업의 지원 과정이 전체적으로 단계적 발전과정에 맞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연구 장학생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며,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문제 해결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생태계 구축과 실제 문제 해결에 기여함을 기대해볼 수 있었다.

Impact Integration
임팩트 적용하기

사회문제해결형 인재로 성장

개별 심층 인터뷰(IDI) 마지막 질문으로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좋은 연구자의 모습은 무엇인지' 라는 질문에 공통적인 답을 들을 수 있었다.

현실성, 소통, 사회문제, 더나은사회, 좋은 연구자, 수용력, 협력, 연구, 쉬운말, 현장과 밀접한 소통, 고민, 관점의 변화

· 관점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연구자
· 어려운 말을 쓰지 않고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
· 실제로 실행 가능한 것을 고민하는 연구자
·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연구자
· 현장과 밀접하게 소통하는 연구자
· 사람들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는 연구를 하는 사람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대중의 언어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실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하는 사람을 좋은 연구자의 모습으로 답하였다. 임팩트 측정 결과를 토대로 이는 (재)숲과나눔의 인재상과 부합하는 것으로 특정주제 연구 장학생 지원사업을 통해 과학성, 공공성, 협력성을 갖춘 사회 문제 해결형 연구 장학생으로 성장하고 변화해 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재)숲과나눔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도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새로운 사회문제 발굴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회 문제는 없는지, 간과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특정주제 연구 장학생 지원사업은 자유로운 연구 주제 선정과 연구 장학생 간의 교류,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문제의식을 심화시키고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실제로 특정주제 연구 장학생 지원사업을 통해 '1인 가구와 환경', '기후 복지', '한반도 환경', '생태 미학 , '커먼즈' 등 환경·안전·보건 분야의 중요하지만 간과되었던 새로운 사회 문제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인 가구와 환경' 연구의 경우 50회 이상 언론보도를 통해 주목받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미세먼지와 운동의 혼합효과가 미치는 건강' 예측 연구의 경우 '국제학술지 유럽심장학회지 European Heart Journal(IF=39.3, 2022년)' 에 발표됨으로써 연구 결과가 이 시대의 새로운 사회 문제 해결의 메시지로 전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대에 중요하지만 간과되고 있는 환경·안전·보건 분야의 새로운 사회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인재의 숲: 더 나은 사회를 기대하며

인재를 양성하는 일은 단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씨앗이 자라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듯 인재의 성장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특정주제 연구 장학생 지원사업의 과정을 통해 어떤 연구자는 빠르게 꽃을 피우기도 하고, 또 어떤 연구자는 이제 싹을 틔우는 과정이지만 시간이 지나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도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사회문제 해결은 한 분야의 문제해결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다.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역량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협력이 필요하며 외롭지만 꿋꿋이 나아가기 위해 서로의 연결과 지지가 필요하다.

(재)숲과나눔은 앞으로도 특정주제 연구 장학생 지원사업을 통해 연구 장학생의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전문성과 공공성을 함양한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사회문제해결형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기여할 것이다.